



A CELEBRATION OF THE MUSIC OF KOREA

HAMKKE WE SING

Dec 2nd. 2024 7:30pm
Rock Hall Auditorium

〈Conductor〉
Elizabeth Beavers

〈Piano〉
Kim Barroso

〈Daegeum〉
Woosung Jung

〈Soprano〉
Jina Jang

Temple university graduate conductor's
chorus and guests

Students from the
Korean school of Southern New jersey

©Artwork by Jimin Jun

지휘자 노트

안녕하세요! 한국 음악의 축제, "함께 노래하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콘서트는 한국에 대한 제 사랑과, 합창 음악이 문화 간 사람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약 1년간의 준비 결과입니다. 저는 6년 넘게 한국에서 살고 일하면서 그 아름다움을 직접 경험했으며, 그 합창 음악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레퍼토리는 그 고유한 예술적 가치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합창 음악에서 충분히 대표되지 않은 점에서도 기념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화 간 경험은 존중을 키우고, 시야를 넓히며, 우리를 더욱 가까이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어 제목에 한국어 단어 '함께'를 포함시켰습니다. '함께'는 함께 노래한다는 뜻입니다.

프레서 대학원 음악상(Presser Graduate Music Award)의 지원을 받아, 저는 지난 여름 30일 동안 한국의 풍부한 음악 유산과 역동적인 합창 장면을 탐험했습니다. 저의 목표는 그 발견을 템플 대학교에서 실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장진아, 정우성, 남부뉴저지 통합 한국학교, 그리고 저희 합창단에 참여한 손님들과 협력할 수 있어 큰 기쁨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든 음악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 저는 지휘자, 작곡가, 학자들과 교류하며 많은 훌륭한 합창 공연을 관람하고, 풍부한 레퍼토리를 접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오늘 프로그램에서 다섯 곡을 선정하는 것은 도전이었으며, 한국 합창 음악의 전체적인 범위를 이렇게 제한된 시간과 공간 안에서 모두 담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 합창 음악은 "아리랑"과 같은 민속곡 편곡을 넘어, 예술곡, 현대 작곡, 비정형적인 작품, 전통과 현대를 결합한 혁신적인 작품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는 한국의 풍부한 음악 유산뿐만 아니라, 새로운 창의적 방향을 열어가고 있는 작곡가들의 창의성도 소개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 세계의 관심 있는 합창단들이 한국 합창 음악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가 탐색을 원하시면, 프로그램 끝에 있는 QR 코드를 사용해 주세요. 이 코드는 점점 확장되는 한국 합창곡 데이터베이스로 연결됩니다.

저는 한국인이 아닌 백인 미국인으로, 한국음악의 대해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한국 합창 음악에 대한 열렬한 지지자이며, 비한국인 합창단이 이 레퍼토리를 잘 배우고 성실하고 진지하게 부르면 성공적으로 연주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전 세계의 합창단들이 이탈리아어, 독일어, 프랑스어로 된 작품을 공연하는 것처럼, 한국어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한국 합창 음악은 너무나 활기차고 중요한 장르이므로 그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으며, 미국에서의 대표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백인 우월주의 이데올로기가 확산됨에 따라, 비한국인 지휘자와 가수들이 이 음악을 통합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제가 만난 전문가들은 그들의 음악이 모든 문화의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주제를 담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이 축제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의 음악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움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길 바랍니다.

~엘리자베스

감사의 글

한국에 있을 동안 저를 지원해주고 아름다운 문화를 가르쳐주신 **한국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관대함, 친절, 지혜, 인내는 제게 깊은 감동을 주었으며, 그 가르침과 정신을 항상 제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프로그램은 **프레서 재단**의 대학원 음악상 지원으로 가능해진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한국 음악을 나누고 합창 예술을 통해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저의 비전을 믿고 지원해주신 프레서 재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에 기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 미국, 또는 온라인으로 저와 시간을 나누고 지식을 아낌없이 나눠주신 **지휘자들, 작곡가들, 전문가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예술을 관찰하고, 여러분의 통찰을 듣고, 한국 합창 음악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큰 영광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음악 세계를 계속해서 형성해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응원할 것입니다.

김기은
김민지
김인제
국현
박수연
박지훈
박혜란
진변
성정민
폴신

우효원
이창호
이민지
이정애
이현섭
임한귀
장민혜
장아이린
정남규
제갈수영

조수진
조혜영
최민성
최석문
하츠샤론
홍툼
홍영상
윤의중

장진아, 항상 저를 믿어주고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다른 훌륭한 예술가들과의 연결을 만들어 주며, 아름다운 목소리와 마음을 나눠줘서 감사합니다.

전지민, 뛰어난 목소리와 멋진 포스터 작품을 공유해 줘서 감사합니다.

이 프로젝트에 예술을 기여한 모든 협력자분들께, 시간과 재능,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정안젤라교감선생님, 윤조슈아선생님, 남부뉴저지 통합한국학교**의 훌륭한 학생들에게 그들의 열정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김, 주희, 케이**, 그리고 전 세계에서 여러분의 예술을 나눠주신 **정우성**님께 감사드립니다.

김민지 박사님, 귀하의 전문 지식과 발음 교정에 감사드립니다.

합창단 여러분, 한국 음악을 함께 기념할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은 열린 마음과 따뜻한 마음으로 이 프로젝트에 임해 주셨고, 우리가 함께 이룬 모든 성과에 대해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여러분은 음악이 국경을 초월한다는 것을 아름답게 증명해 주셨고, 여러분의 노력 덕분에 음악을 진정성 있게 훌륭하게 연주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신 **청중 여러분**, 현장에서나 온라인으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존재와 목소리가 이 프로젝트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지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 **스승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폴 라딘 박사님**, 프레서 음악상 작업을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며, 귀중한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석사 과정 동안 학문적인 작업뿐만 아니라 교수님의 인간미와 리더십을 통해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미토스 안다야 하트 박사님, 제 두 번의 리사이틀에서의 지도와 멘토링, 그리고 가르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교수님은 저에게 영감을 주시고, 이 분야에서 여성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십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 변함없는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언제나 저를 지지해 주시고, 제 음악 교육과 인생의 길을 항상 응원해주신 사랑하는 **부모님**께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남편 **주상**에게, 우리는 이제 이 년 반 동안의 장거리 결혼 생활의 끝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어려움과 불확실성 속에서도 항상 나를 지지해줘서 고마워요. 이 작품을 위해서도 뒷받침해주고, 변함없이 나를 응원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당신을 사랑하고, 다시 함께할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프레서 재단

음악에 대한 열정을 가진 테오도르 프레서는 음악에 보답하고자 했습니다. 그가 1925년에 사망했을 당시, 그는 두 번의 사별을 경험했고 자녀는 없었습니다. 그의 재산 대부분은 그의 사망 14년 후에 공식적으로 설립된 프레서 재단에 남겨졌습니다. 1995년부터 2021년 6월까지 프레서 재단은 음악 단체, 학부 및 대학원 음악 학생들, 은퇴한 음악 교사들에게 8천만 달러 이상을 기부했습니다.

원래 재단은 유망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하고, 음악 단체들의 건물 건설을 지원하며, 은퇴한 음악 교사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음악 교육과 음악 자선 활동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재단은 다양한 음악 장르를 지원하고, 기부 영역을 확장하며, 특별 행사에서 비영리 파트너들을 모으고, 다른 후원자들과 협력하는 등 발전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오도르 프레서의 원래 의도와 바람을 계속해서 따르고 있습니다.

프레서 재단 웹사이트에서의 안내문

함께 노래 하다
한국 음악의 축제
템플 대학교 대학원 지휘자의 합창단
엘리자베스 비버즈, 지휘
킴 바로소, 피아노

Non Mea Sed Tua 이송이 (1997년생)
이송이, 피아노와 보컬 솔로

밀양아리랑 제갈수영 (1981년생)
아드리아나 바넷, 소프라노
줄리안 응웬, 테너

겨울 사랑 폴신 (1967년생)

청성곡 정악
정우성, 대금

사물놀이 풍물
남부뉴저지 통합한국학교의 학생들

금잔디 조혜영 (1969년생)
정우성, 대금
케이 마이어, 오보에
킴 바로소와 김주희, 피아노

못잊어 조혜영
장진아, 소프라노
김주희, 피아노

Alleluia 우효원 (1974년생)
로베르토 게바라, 테너

아리랑 우효원
정우성, 대금
남부뉴저지 통합한국학교의 학생들

프로그램 노트 및 텍스트

Non Mea Sed Tua

이송이, 한국 출신의 작곡가는 현재 필라델피아의 템플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음악과 예술에 뿌리를 둔 가문에서 자란 그는 지질학, 한국군 복무, 그리고 차 사업에서 일하는 등 매우 다양한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궁극적으로 음악에 대한 열정이 그를 미국으로 이끌었고, 작곡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송이는 2024년 12월에 졸업할 예정이며,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협력하고, 그의 풍부한 인생 경험과 문화 유산을 작품에 담고자 합니다.



마음 깊은 곳의 참소함이 나를 밤마다 깨울 때

혼자 흘리는 눈물만으로 버티곤 해요

이런 것일 줄은 몰랐죠 주의 뜻대로 살려는게

모든 존재 다 떠나가고 혼자 남았네요

내게 주어진 외로운 삶 속에 감당키 힘든 고통만 가득하네요

아버지 이름 부르며 고꾸라지면

조용한 새벽만 내 몸을 덮네

Non mea voluntas, sed tua fiat.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나의 고통을 제발 알아주소서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소서

아버지 이름 부르며 원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밀양아리랑

제갈수영은 한세대학교 대학원 공연예술학과 석사 과정을 졸업한 졸업생입니다. 에츠하임 오케스트라의 대표로서, 그녀는 크리스마스 칸타타 곡집 '카르네우스'를 포함한 여러 공연에 기여했습니다. 그녀의 다양한 음악적 업적은 창작된 대중곡, 콘서트 앨범, 그리고 찬사를 받은 "시간의 꽃"을 포함한 오리지널 작곡에 이릅니다.

"밀양아리랑" 합창단이 처음으로 부를 곡으로, "날좀보소!"라는 대담한 가사로 관객들에게 한국 문화의 풍부함을 알아봐 달라는 강렬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곡은 밀양의 편곡으로, 원래의 멜로디는 그 독특한 시김새(음악적 장식)로 잘 알려져 있으며, 한국 문화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으로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작곡가 제갈수영은 "밀양아리랑"을 전통적인 멜로디에 세계적인 영향을 결합하고, 현대적인 가사를 추가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이 편곡은 한국의 복합박자 패턴을 연상시키는 리듬에서, 그리움이 묻어나는 표현적인 대위법으로, 그리고 기쁨과 사랑을 상징하는 활기찬 보사노바 리듬으로 전환됩니다. 이러한 스타일의 역동적인 융합은 뮤지컬 같은 느낌을 자아내며, 원래의 민속곡의 진 진정성을 존중합니다. "밀양아리랑"은 한국 음악 유산의 지속적인 힘을 증명하는 작품으로, 현대 관객을 위해 재해석되었습니다

날좀보소 날좀보소 날좀보소

동지선달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예쁜 나의 공주님 누구

영원한 나의 반쪽

어디서 찾아 헤메나

멋진 나의 왕자님 누구
영원한 나의 반쪽
여기서 기다릴게요

그대 내 마음속에 영원히
사랑이 되어 주세요
정든 임 찾아서

오 내 사랑 나의 정든 임
어이 계시나
오 내 사랑 나의 정든 임
내 사랑 영원히 그대

오시는데 인사를 못해
행주 치마 쪽 입에 물고 병긔

겨울 사랑

작곡가 폴 신(필명: 아포지아투라)은 자신을 "메타모던 작곡가"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아방가르드 음악이 근본 과학 철학의 변화와 함께 진화한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신은 자연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표현하는 음악 기법을 개발하고자 하며, 특히 시간, 차원, 의식에 관한 개념에 중점을 둡니다.

“겨울 사랑”에서는 신이 문정희(1947년생)의 시를 바탕으로 곡을 썼습니다. 문정희는 한국에서 독립적으로 시를 발표한 첫 여성 시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현대문학상과 소월시문학상 등 여러 권위 있는 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소월은 이번 프로그램에서 또 다른 시인으로 소개될 것입니다. 신은 문정희의 비유적이고 낭만적인 텍스트를 독특한 화성, 휘몰아치는 피아노 선율, 그리고 대화처럼 흘러가는 합창 구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 송이 처럼

너에게 가고 싶다

머뭇거리지 말고

서성 대지 말고

숨기지 말고

그냥, 네 하얀 생애 속에 뛰어 들어

따스한 겨울이 되고 싶다

천년 백설이 되고 싶다

청성곡

정우성은 한국 무형문화재 대금정악의 인증된 수습생으로, 대금이라는 대형 대나무 횡악기를 전문으로 하며, 한국의 고전 음악 장르인 정악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는 또한 소금, 단소, 태평소와 같은 다양한 다른 관악기와 장구, 북과 같은 타악기에도 능숙합니다.



시카고 한국예술원(한국 공연예술 연구소)에서 부소장으로 재직 중인 그는 단소 앙상블, 기악 앙상블, 그리고 군악대인 시카고 취타대를 이끌어왔습니다. 정은 카네기홀, 케네디 센터, 링컨 센터, 조던 홀과 같은 권위 있는 공연장에서 연주한 바 있으며, 전 세계에서 한국 전통 음악을 가르치고 공연하고 있습니다.

“청성곡”은 대금 솔로를 위한 잘 알려진 곡으로, 대금의 넓은 음역과 표현력을 강조하는 작품입니다. 이 곡은 대금 명인들에 의해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또한 이 곡은 “청성자진한입” 또는 “여천선일지곡”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이는 “요순 시대의 하늘과 태양”이라는 뜻으로, 기원전

3천년대 동아시아 역사상 가장 평화로운 시기 중 하나를 가리킵니다. 이 음악은 고요하고 조화로운 느낌을 불러일으키며, 이 황금기의 평온함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물놀이

사물놀이는 전통적인 한국 타악기 음악의 역동적인 형태로, 농악에서 비롯된 농촌 음악입니다. "사물놀이"라는 이름은 "네 가지 물건의 놀이"를 의미하며, 네 개의 악기인 썰과리, 징, 장구, 북을 가리킵니다. 각 악기는 자연의 네 가지 요소인 천둥, 바람, 비, 구름을 상징하며, 자연의 활력을 반영하는 리듬적으로 복잡한 사운드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악기들의 에너지 넘치는 상호작용은 기운을 북돋우며, 기쁨과 단합의 감각을 만들어냅니다.

원래 농업 의식과 관련이 있었던 사물놀이는 전통적인 리듬과 현대적인 요소를 결합하여 콘서트 형태로 발전하였습니다. 오늘날 사물놀이는 문화 축제, 지역 사회 행사, 교육적인 행사에서 자주 공연되며, 한국의 유산을 표현하는 문화적 의미와 함께 오락적인 역할을 합니다.

금잔디

조혜영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작곡가로, 그녀의 작품은 전국의 여러 공연에서 연주되었고, 한국의 주요 전문 합창단들로부터 위촉을 받아왔습니다. 현재 인천시립합창단의 상주 작곡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전에는 안산시립합창단과 국립합창단의 상주 작곡가로도 활동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한국합창작곡가협회(KCCA)의 전 회장으로, 한양대학교, 건국대학교, 강원대학교 등 여러 명문 대학에서 작곡을 가르쳤습니다. 조혜영은 서울 한양대학교에서 작곡으로 학사 및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조혜영 작곡가는 “전 세계 사람들이 이해하고 부를 수 있는 한국어 합창곡을 작곡할 것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녀의 작품 “금잔디”는 이 비전을 구현한 작품으로, 한국의 본질을 현대적인 시각으로 담아내면서도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음악입니다. 이 곡은 대금과 피리와 같은 전통 악기들을 현대적인 합창 요소와 결합시켜, 악기와 합창 모두에서 시김새와 같은 선율 장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봄의 도래를 전통적인 12박자 장단인 중모리와 함께 표현하며, 조혜영의 시그니처 스타일인 현대적인 화성과 낭만적인 풍미가 결합된 선율이 돋보입니다. “금잔디”는 한국의 문화적 깊이와 혁신을 반영하며, 전 세계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①			○	!		○	○		○	!	
덩		덕	쿵	덕더	덕덕	쿵	쿵	덕	쿵	덕더	덕덕

중모리 장단: 서양과 전통 한국 악보 표기법

한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시인 중 한 명인 김소월(1902-1934, 본명: 김정식)의 시를 설정한 작품입니다.

잔디

잔디

금잔디

심심 산천(深深山川)에 붙는 불은

가신 임 무덤 가에 금잔디

봄이 왔네, 봄빛이 왔네,

버드나무 끝에도 실가지에

봄빛이 왔네, 봄날이 왔네.

심심 산천에도 금잔디에.

못잊어

"못잊어"는 조혜영 작곡가의 대표적인 작품 중 하나로, '금잔디'와 마찬가지로 소월 김의 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김소월의 유일한 시집 "진달래꽃"에 실려 있으며, 김소월이 10대 시절에 쓴 작품입니다. 세 개의 연으로 구성된 이 시는 잃어버린 사랑하는 이의 기억이 시간이 지나면서도 여전히 지속된다는 내용을 다룹니다. 조혜영은 특정 단어와 구절을 반복하여 음악적, 시적 효과를 극대화하며, 피아노 프렐루드는 기억을 떠올리는 행위를 반영합니다. 작곡가는 다양한 기법을 사용하여 음향의 대비와 층이 있는 질감을 통해 각성과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처음의 주제를 다시 사용하며, 기억이 다른 조로 표현되는 변화를 상징합니다. 오늘 밤 "못잊어"는 소프라노 장진아와 피아니스트 김주희의 연주로 들려지며, 이 곡에는 합창 편곡도 존재합니다.

못잊어 생각이 나겠지요.

그런대로 한 세상 지내시구려,

사노라면 잊힐날 있으리다.

못잊어 생각이 나겠지요.
그런대로 세월만 가라시구려,
못잊어도 더러는 잊히오리다.

그러나 또한곳 이렇지요,
'그리워 살뜰히 못잊는데,'
어쩌면 생각이 떠지나요.

Alleluia

한국을 대표하는 작곡가로 잘 알려진 **우효원**은 합창 음악 분야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입니다. 그녀의 혁신적인 작품은 전통적인 한국 음악 요소와 서양 기법을 결합하여, 독특한 언어적 표현으로 작품을 더욱 고양시킵니다. 1996년부터 우효원은 서울여성합창단의 상주 작곡가로 활동해왔으며, 1999년부터 2014년까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윤학원 지휘자와 함께 인천시립합창단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다작의 작곡가인 우효원은 찬송가와 영가 편곡, 솔로, 칸타타, 레퀴엠, 다성 모테트, 실내악, 합창 교향곡 등 폭넓은 장르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이 곡에서는 “Alleluia”의 새로운 해석이 등장합니다. 강한 리듬과 강세가 흐르는 '찬트' 구절과 대비를 이루며, 테너 솔로는 한국의 창 음성 스타일을 접목시킵니다. 창은 판소리와 같은 장르에서 두드러지며, 강력하고 표현력 넘치는 노래와 함께 드럼을 사용하는 역동적인 이야기 전달 방식이 특징입니다. 창을 구현하는 보컬 기법은 다이내믹한 발음과 '가슴 목소리'라고도 불리는 기술, 그리고 한(슬픔)과 흥(기쁨)을 반영하는 장식적 요소들이 특징입니다. “Alleluia”의 대비되는 요소들 - 긴장과 이완, 빠르고 느린 템포, 부드럽고 강한 다이내믹 - 이 모여 강렬한 피날레로 마무리됩니다.

아리랑

"아리랑"은 한국에서 가장 사랑받고 오래된 민속곡 중 하나로, 간결하면서도 깊은 감동을 주는 선율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리랑"은 3,800개가 넘는 지역적 변형이 있지만, 그 모든 버전은 그리움, 회복력, 사랑이라는 공통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문화적 의미를 넘어, "아리랑"은 사회 정의의 상징으로도 사용되어 왔습니다. 2012년에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 목록에 등재되어, 한국 전통을 보존하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정받았습니다.

우효원의 편곡은 서정적인 성악과 악기 선율로 시작되며, 한국 전통 타악기와 함께 활기찬 리듬의 결말로 이어집니다. 프로그램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번 곡에서는 특별 게스트들과 함께 무대에 올라, 여러분께서도 함께 부르실 수 있도록 초대드립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가서 발병난다

연주자



김주희는 뛰어난 피아니스트이자 협업 아티스트로, 피아노 반주와 오페라 코칭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피아노 반주와 오페라 코칭으로 석사 학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템플대학교, 템플뮤직프렘, PMAY 아티스트 이니셔티브에서 스타프 반주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는 젊은 음악가들과 밀접하게 협력하며 그들의 예술적 발전을 돕고 있습니다. 김주희는 보헤미 오페라 NJ와 펜실베이니아 걸콰이어와의 협업 경험이 풍부하며, 이들 공연에서 전문가로서 반주를 제공하고 합창 분야에서 음악적 우수성을 함양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녀의 협업에 대한 헌신은 오페라와 합창 분야 모두에서 그녀를 매우 인기 있는 음악가로 만들었습니다.

소프라노 장진아는 한국 한서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으며, 재학 중 전액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소프라노 이정애 교수에게, 미국에서는 소프라노 해롤린 블랙웰에게 성악을 사사했습니다. 장진아는 권위 있는 동아 전국음악콩쿠르와 서울시립교향악단 콩쿠르에서 1위를 수상한 바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싱어즈, 멘델스존 합창단, 필라델피아 심포닉 콰이어 등 여러 전문 앙상블의 주요 멤버로 활동하며 수많은 콘서트에서 뛰어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또한 필라델피아 오페라단과 함께 *10 Days in a Madhouse*의 세계 초연에 출연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장진아는 체리힐 제일감리교회의 시온 콰이어와 보람 콰이어의 음악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 로호 셀레스티노 바로소는
델라웨어 밸리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협력
피아니스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필리핀 출신인 그는
필리핀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윈스롭
대학교에서 학부 과정을 마친
후, 템플 대학교에서 피아노
연주와 실내악 반주로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현재

그는 필라델피아 올드 시티에 위치한 성 아우구스티노 교회의 음악 감독이자
템플 대학교의 상주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 는 커티스 음악원,
유니버시티 오브 더 아츠, 러트거스 대학교(캠든), 로완 대학교, 제퍼슨
대학교, 델라웨어 대학교와의 협연을 포함해 다양한 음악적 협력 프로젝트에
참여해왔습니다.

엘리자베스 비버즈는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지휘자이자 교육자로, 자율적이고, 동정심
있으며, 음악적인 공동체를 육성하는 데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8년 이상의
합창 지휘 경험을 쌓은 뒤, 최근
필라델피아로 돌아왔으며, 그중 6년은
한국에서 폴브라이트 장학생으로 그리고
아시아퍼시픽국제외국인학교와
부산국제외국인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했습니다. 현재 템플대학교에서 폴 라딘
박사의 지도 아래 합창 지휘 석사 과정을
밟고 있으며, 메릴랜드대학교에서 성악 및
음악교육(피아노 세부 전공)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또한, 필라델피아 멘델스존
코러스의 시니어 지휘 연수생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습니다.



남부뉴저지 통합한국학교(KSSNJ)는 지역 미국 사회 내에서 한국의 유산을 보존하고 홍보하는 데 전념하는 비영리 교육 및 문화 단체입니다. 160명이 넘는 학생들이 열정적인 교사와 행정팀의 지원을 받고 있는 KSSNJ는 뛰어난 교육적 성과로 인정받아 다양한 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포용하는 이 학교는 현대 문화적 요구에 부응하며 생동감 넘치는 공연을 통해 예술적 재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남부뉴저지 통합한국학교 정안젤라교감선생님과 윤조슈아음악선생님

사물놀이

최지성
이정성
전이수
강성민
이성준
김세현
황엘리엇

모듬북

이성준
이정성
전이수

템플 대학교 대학원 지휘자의 합창단

소프라노

아드리아나 바넷
케일라 엘리엇
장진아
전지민
이교연
아난야 라비
로슬린 리치
빅토리아 스미스

알토

테일러 부텐쇼엔
카르멜리나 파바키아
타티야나 헤이워드
강명경
사라 페트코
메이시 로버츠
세이디 로저
시드니 스펙터
안젤라 손턴

테너

션 앤더슨
로베르토 게바라
제이미 해터
이송이
블레이크 레빈슨
매트 리스트
찰스 맥닐
줄리안 응웬

베이스

자카리 알바라도
마이클 카슨
브라이슨 크리스토퍼
게이브 커츠
카일러 스프링어